

"세계일화사상 널리 알릴터"

만공장학기금 추진 성해스님



근세 선불교의 증흥조 경허스님으로부터 법을 부속받은 만공스님을 기리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 전국순회 전시회 개최를 백방으로 뛰고 있는 (재)선학원 원장 성해스님. 스님은 최근 전시회 준비차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혼란상은 다시 만공스님의 기백과 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일제때도 초개와 같은 지조로 호통치던 그 삶과 사상을 젊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해 만공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공장학기금 마련 성해스님 선사화전은 오는 11월10일부터 19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열리며, 스님의 개인전으로는 12회째가 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30년 가까운 스님의 선사화가 대작 소작으로 80여점이 선보이며, 부산 대구 등 전국순회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작품은 '세계일화(世界一華)' 등 만공스님 법어와 계승을 담은 내용으로 대중적인 쓰임새를 강조한 것이 주류.

"만공스님은 선학원에 계시면서 해월 함안스님과 한국 불교 선종을 창종하고 공동 중흥을 역임하신 분으로, 20세기를 빛낸 큰스님"이라며, "선학원 원장으로서나 문중으로서 장학기금을 통해 생애를 널리 펴고자 한다"는 스님은 때마침 한국조계종사가 만든 만공스님 기념메달도 뜻깊은 불사로 많은 불자들이 소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밝혔다.

만공스님 장학기금은 선방수좌의 정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일반 대학생을 선발해 전달될 예정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opia.com)

예술원상에 이형기·백성희씨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조경화)은 12일 제44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시인인 이형기씨(66·사진 왼쪽), 연극영화 무용 부문에 연기자인 백성희씨(74)를 각각 선정했다.

이씨는 <갈박> <죽지 않는 도시> 등 다수의 시집을 발표했고 93년에 소설 <소가모니>를 펴냈다. 백씨는 <무영탑> <봉선화> <운술랑> 등 40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국립극단장을 역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9월6일 예술원서 열린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언론통해 불법홍보"

부산 울산경남언론인회장

주홍식씨



"불교언론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9일 창립법회를 가진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 주홍식(56·부산MBC 기획심의팀 국장) 회장의 말이다. 주회장은 "불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우리민족 정신세계에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언론을 통한 불법 알리기를 첫째 과제로 삼고 있다고 피력했다.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갖고 부회장 및 기타위원을 선출하고 진주, 마산 등 경남지역의 언론인 흡수를 위한 현지법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교차로

대원불교대학생 수계법회



봉행한다.

월은 동국대 역경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원불교회관에서 대원불교대학생, 신도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호국월문사 법당 낙성증명



밀운 육군 제5797부대 법당건립추진위원장(봉선사 주지)은 21일 오후 2시 육군 7포병여단 호국월문사 군법당 낙성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한다.(0346)577-8322

중장대학교 학술회 참석



보광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스님은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절강대학교 한국연구소 초청으로 97년 황해 남북 탐사 성공 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 치문화 연구회



용운 초의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부여 삼정유스호스텔에서 제11차 한국 치문화 연구회를 개최한다.(02)732-2317

지양복지관 새 관장에



지홍 조계사 부주지는 최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양사회복지관 새 관장에 임명됐다.

베를린 보문사 불사차 귀국



초에 재출국할 예정이다.

병오 독일 베를린 보문사(통도사 독일 포교원) 주지는 5일 보문사의 확장이전 불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5일 귀국, 8월

거제시민·공무원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 회장은 23일 오후3시 거제시 교육센터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한다. 또 24일 오전11시에 광주 함림사 법회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주제로 강의한다.

법사회 법시원 하계수련



목정대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법사회 및 법사원 불교대학 하계 수련대회를 23일부터 2일간 경남 실시한다.(02)499-1671

북경·상해서 정기연주회



박변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14일 베이징과 16일 상하이에서 '아시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순결지킴이 서약식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장은 16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관 고취를 위해 '청소년 순결지

"자랑스런 한국인상" 대상



실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 스님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포럼신문사와 21세기 시민포럼 연합이 주최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실산스님은 평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활동 등 자비행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키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추천서당 여름 한학강좌



김희수 추천서당 원장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 주역 및 명심보감, 사서삼경, 통감 등 한학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2~7시에 진행된다.(02)735-3050

'마음의 문' 등 낙성식



박찬수 목야불교 박물관장은 개관 6주년을 기념, 17일 큰 말씀의 집, 마음의 문, 맞은 낙성식을 거행했다. 행사 후에는 불교방송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런한 자선콘서트'도 개최했다.

이달의 PD수상



박상필 불교방송 PD는 16일 방송회관 21층 튜닝홀에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제4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신재호 전자공학과 교수

몽주사 전통강원연합 학술회 내용

"간화선 재가자에도 적용돼야"



원용스님



초승스님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의장 덕암)은 16일 몽주사 효행교육원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용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발표회는 원용스님(해인총림 유나·사진 왼쪽)의 '간화선 수행에 대하여', 초승스님(티벳의 '티벳불교의 수행종류',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의 '조계종 교육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원용스님은 "우리 전통에 가장 적합한 간화선 참선법은 참선납승 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참선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용스님은 송나라 말 대혜스님 당시의 법문이 대부분 사대부 재가신도들과의 관계에서 나왔듯이 간화선의 성립은 재가인들과의 관계속에서 성립되었기에 스님들의 전문몰입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조사선이라는 이름 아래 참선납승들에게만 국한된 고답적이고 권위적이며 폐쇄적 수행법으로 시행되어 온 간화선. 이제는 일상 일과를 수행하는 가운데 '화두를 가법계 굴리라'는 (서장)의 가르침처럼 불자라면 누구나 자기의 본참공안을 결탁해서 항상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용스님은 "모든 사람이 간화선 수행을 통해 자기의 자성을 사무쳐 보아서 안신입명처(安身立命處)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승스님은 "대승불교에서 발심과 육바라밀 방편만을 사용하는 바라밀승과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는 금강승은 도달해야 하는 부처의 경지는 똑같으며, 단지 길을 가는 수행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강승의 경우는 입문 전에 발심과 보리심에 대한 경계를 삼고 스승의 말씀과 계율을 바탕으로 항상 본존의 법문에 대해 일심으로 명상하여 부처의 색신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바라밀승은 한문의 생안으로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수많은 생을 통해서만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탄트라에 의지해 준비된 수행자는 이번 생애 바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금강승의 특징이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하와이 대원사서 여름특강

강건기·김철 교수 9월 선무학 세미나도 참석



강건기



김철

교수포교사로 유명한 두 교수가 해외사람 초청으로 해외 포교에 나선다. 강건기(전북대·사진 왼쪽)와 김철(원광대)교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와이 대원사(주지 도현)에서 불교강의를 실시한다. 미주불교 포교를 위해 대원사가 마련한 하계불교강좌는 4주간 매주 2회 4시간의 강의와 별도의 특강으로 이뤄진다. 강건기교수는 '교리와 본질' '현대사회의 불교' '불교의 특성' '불교의 신학'을, 김철교수는 '현대인의 성향과 선' '현대인의 선택' '현대인의 건강과 선무도' '현대인과 선의식' 등을 각각 맡아 강의한다.

강건기 김철교수는 대원사에 머무는 동안 동양학의 메카인 하와이대학의 현지교수들과도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토론을 갖고 9월경 열리는 선무학회 국제세미나에서 함께 주제발표한다. 김원우 기자(wkim@buddhopia.com)

500리길 걸으며 관음정진



Focus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뜨거운 햇볕, 30도를 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신을 관(觀)하며 걷는 지난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시작한 5박6일 동안 200km의 거리를 걸을 하나에 관세음보살, 걸을 틈에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걷는 정진대회를 가졌다. 국민 대안결과 IMF경제회복을 염원하며 가진 이 걸기정진대회에는 천태종 교육부장 도원스님과 교육국장 덕해스님이 묵탁을 치며 행진을 이끌었다. 도보행진을 통해 천태수행법의 하나인 상행삼매(常行三昧)를 직접 실천하고자 한 이번 걸기정진대회는 17일 오후 3시 소백산 구인사에서 회합됐다. 이경숙 기자

이제는 집에서든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시용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속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 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화중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중국인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직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죽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지·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에 관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문법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계동 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세한 문헌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욕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지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